

# 교학·미술·응용 등 다양한 주제 눈길

## 불교종립대 가을 석·박사 학위 논문 살펴보니

2015년 하반기에도 종립학교에서 많은 불교박사들이 탄생했다. 본지 조사결과 이번 학기에 종립학교에서 불교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는 모두 10명이었다. 전공분야는 교학, 역사, 미술 등 다양했다.

먼저 이번 박사논문에서는 경허·자장·용성 스님 등 인물에 대한 사상연구가 주를 이뤘다. 먼저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자현 스님은 신라 자장(慈藏) 스님의 전기(傳記) 자료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전기를 써온 찬술자들의 관점과 의식에 대한 탐구다. 스님은 찬술자 정리와 함께 새로 발견된 민지(閔漬)의 개창조사전거(開創祖師傳記)와 관련된 판본 내용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스님은 자장 스님의 생애를 입당을 기점으로 '입당 이전' '입당 기간' '귀국 후'의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스님은 자장 스님의 입당 이전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종교체험인 사상수계를 다루고 입당 후 오대산에서의 문수보살 친견의 연도 등을 다시 정리했다.

다"고 말했다.

동국대 선학과 철우 스님의 '설장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는 김시습의 불교관련 저술인 <화엄석제> <일승법계도주병서> <연경별찬> <심현담요해> <조동오위요해> 등에 나타난 선사상을 논한 것이다. 스님은 "김시습은 <일승법계도주병서>에서 화엄의 '성기' 사상을 제창하고 있으며, <연경별찬>과 <심현담요해>, <조동오위요해>에서는 주로 성구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화엄석제>에서는 비록 성기사상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선사상을 이끌어내면서 성구의 관점을 개입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 동국대 등 종립대 불교박사 10명 배출 석사 62명... 불교학 발전 기대

분명하게 '성기'와 '성구'의 병존과 '화회'의 관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화엄선'을 이끌어낸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선학과 윤점열 박사의 '용성선사 역해 <금강경> 연구'는 용성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이다. 특히 윤 박사는 <금강경> 번역본의 각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용성 스님 번역의 특징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불교 흐름을 연구한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불교

## 2015학년 하반기 불교주제 박사 논문

학교명	이름	논문명
동국대 선학과	윤점열	용성선사 역해 <금강경> 연구
	이민경	석도화상의 일획(일화)사상 연구
	철우 스님	설장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신해 스님	청규에 나타난 습의 연구
	홍현지	경허 성우의 '중도불이' 사상 연구
동국대 불교학과	오명지	중국 역대 왕조의 사리방안 연구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자현 스님	자장(慈藏)의 전기(傳記)자료 연구
금강대 사회복지불교학과	하영수	<법화경>의 삼보(三寶) 구조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동국대 미술학과	김선희	동황 막고굴과 한국 화엄경변상도의 비교연구
	김성훈	초기불교 한두교계 신종도상의 연구

학과 오명지 박사의 '중국 역대 왕조의 사리방안 연구'는 현재 불교계의 사리신앙에 대한 근원을 탐구한 논문이다. 오 박사는 중국에서 사리신앙이 신이적이고 전륜성왕사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 대해 연구했다.

동국대 미술학과 김선희 박사의 '돈황 막고굴과 한국 화엄경변상도 비교연구'의 경우 그동안 연구가 되지 않았던 돈황 막고굴의 29개 굴내 화엄계 불화와 한국 화엄계 불화를 비교 고찰한 논문으로 김 박사는 돈황과 중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불교미술의 관계를 고찰했다.

김 박사는 "화엄계 불화는 중국 돈황 막고굴서 태동해 한반도로 전래됐다. 돈황 화엄경변상도는 지사와 천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도상화시켜 하단은 지상설법, 상단은 천상설법을 도상화 했다. 이런 양식적 특징은 통일과 균제미, 호화로운 채색으로 나타나며 송광사, 선암사 쌍계사의 화엄변상도의 모습에서 이런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대 사회복지불교학과 하영수 박사의 '<법화경>의 삼보 구조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는 법화경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시도로 하 박사는 근대 이후의 대승불교 연구와 <법화경>의 성립사 연구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역사주의적, 문헌분석적인 관점에 경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서, <법화경>의 의미론적 통합성을 중시하여 경전의 사상을 해명했다.

하 박사는 "법화경의 경우 기존 경전과 달리 불법승 삼보 전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방편품'에서 붓다의 지혜, '여래수랑품'에서 붓다의 자비를 표현하는 등 삼보 각각의 본질과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립대학의 불교관련 석사는 문은 총 62편에 달했다. 안희복 '사찰의 김장문화 실태조사', 한세인 '불교무용 콘텐츠 연구', 김미정 '명상 기반 경전 치유 프로그램 연구' 등 응용분야가 강세를 나타냈다.

## 대한불교진흥원 제13회 대원상 공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이 2015년 제13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大圓賞)은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한 상이다.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나뉜다.

포교대상은 출가 부문과 재가 부문에 대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3인) 이내로 총상금 5000만원이다.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의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분야와 오디오·영상 콘텐츠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총상금은 4000만원이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2일(금)까지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 연내 영문도록 7권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미술품들을 소개한 영문도록 7권이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경나)은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국문화화 영문도록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책으로 통일신라시대 조각작품을 담은 <통일신라조각(Sculptures of Unified Silla)>을 최근 발간했다.

박물관은 <고려청자>, <조선시대 청화백자>, <조선시대 불화>, <조선시대 향연

과 의례>, <조선시대 초상화>, <한국 나전칠기> 등 영문도록 6권도 모두 올해 안에 전자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아마존과 교보문고 등 국내외의 우수 전자책 상거래 시장에 한국문화화 영문도록 전자책을 출시할 예정이다.

박물관은 "한국 문화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대중들이 직접 전자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볼 수 있도록 전자책을 발간했다"며,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알리기와 한국문화 수요증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성철 참선 프로그램 최초 시도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윤택)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과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박선형)은 공동으로 성철스님의 불교관과 참선 수행관에 입각해 일반인에게 참선을 쉽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참선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참선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며 강의와 실참교육이 병행된다.

첫 강연으로는 윤택 스님(백련불교문화

재단 이사장)의 '성철스님의 선사상'이 진행되며 △삼양초 중도육영재단 이사장의 '<백일법문>과 중도의 실천'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성철스님 백일법문의 역사적 의의'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의 '백일법문' 읽기와 중도 정진 세우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중에는 해인사 백련암과 성철스님 생가인 겸의사를 직접 방문하는 1박2일 참선 수련회도 열린다. 내년에는 <성철스님 백일법문 특별강좌>도 추진된다. (02)2198-5101 노덕현 기자

## “화엄경, 인도 서북지역에서 제작됐다”

### 석길암 교수, 금강대 화엄경 편집과정 조영

석길암 금강대 교수(사진)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8월 12일 금강대 본관에서 개최한 '불교고전어, 고전문헌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제23차 콜로키움에서 화엄경의 형성과 편집과정이 '서인도'에서 이뤄졌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동안 화엄경은 중앙아시아 호탄(Khotan)을 중심으로 주로 편집이 됐다는 학설이 주류였다.



증될 수 있지만 편집의 증거로 제시하기엔 부족하다"며 "보살주처품에서 제국주처를 검토하면 이 지리적 시야가 서북인도임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화엄경이 편집된 불교사회는 불탑신앙이 활발히 이뤄진 지역이었으며 대승경전에 대하여 '비불설'이라는 비난이 행해지던 곳이었다. 대승경전에 비불설 비난이 일어날 만큼 대승경전 출현이 지속적이면서도 아비달마불교의 확실한 우위가 있던 곳이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석 교수는 또 "〈지분경〉은 물론 〈화엄경〉 편집과정 중 증보된 부분에도 성문연각으로 표현된 부파불교 의식 대응이 적지 않다. 이는 4세기 중반 무렵까지 화엄경 편집장소가 부파불교가 우세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끝으로 "호탄 지역은 편집이 이뤄지기 보다 이 편집본을 전해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근대 신종교, 사이버로만 볼 수 없다.”

### 한국불교학회 워크숍서 무속·신종교와 불교 관계 탐구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8월 7~8일 강화 전등사에서 개최한 하계워크숍에서 '민속신앙과 불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용표 前 한국불교학회장을 좌장으로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불교의 한국 도착화 과정', 홍태만 전북대 교수의 '한국 무속의 의미 규명을 위한 불교의 가치',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구한말 신종교와 불교의 관계' 등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김방룡 교수는 "한국의 신종교는 반의세 반봉건 성격이 내재해있고, 일제 종교정책에 의한 탄압 속에 소위 '유사' 혹은 '사이비종교'로 규정되고 낙인 찍힌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말 민중종교들이 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친일 관계에서 신종교들의 활동과 기존 불교계의 친일반민



적 활동을 비교고찰하면 부끄러운 점이 많다. 일제시대 불교계 신종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한국근대불교 외연을 넓히고 근대불교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